

조선/기계/운송 Analyst 배기연 RA 오정하

02. 6454-4879
kiyeon.bae@meritz.co.kr02. 6454-4873
jungha.oh@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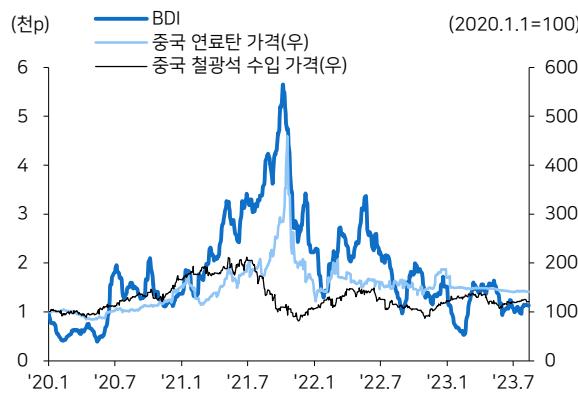
2023. 8. 21 (월)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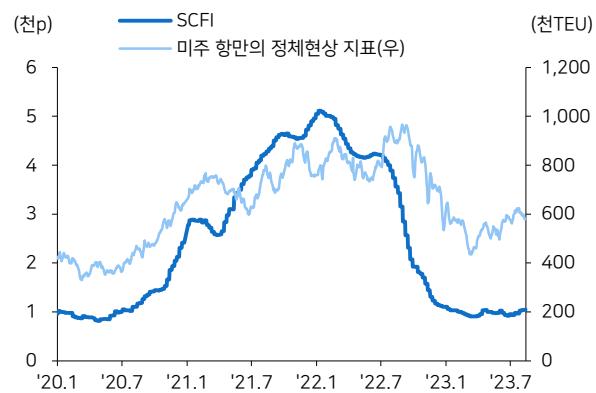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1,237.0p(-10.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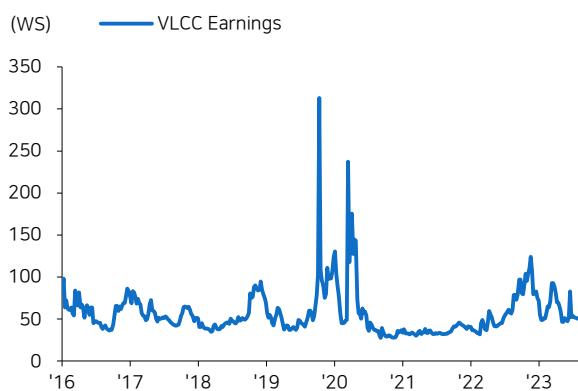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1,031.0p(-12.5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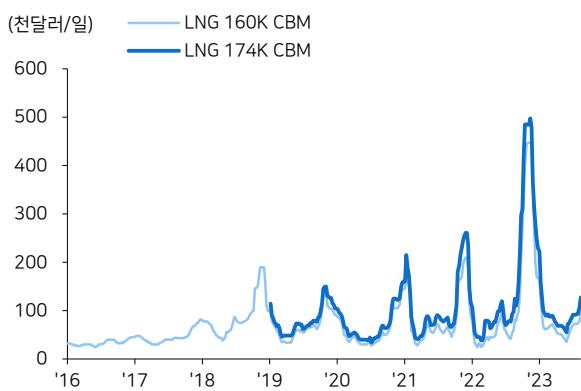


VLCC Spot R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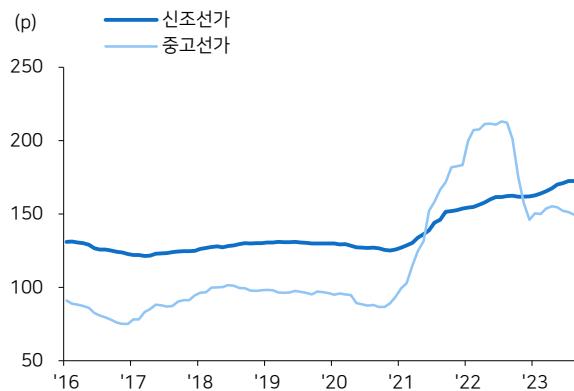
46.8p(-2.5p WoW)



LNG Spot 운임

117.5천달러(+21.3천달러 WoW)
155.0천달러(+27.5천달러 WoW)

신조선가 및 중고선가

172.7p(- WoW)
148.8p(-0.8p WoW)

중국 내수 후판가격

556.0달러(+1.0p DoD)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2파전 된 폴란드 신형 잠수함 사업

폴란드 잠수함 사업에서 한국의 독주가 예상된다고 알려짐. 서방세계가 우크라이나에 다양한 유형의 재래식 무기를 공급했고, 그 결과 유럽 각국 군대의 무기 상태가 얼마나 처참한지 확인되었다고 보도됨. 길어진 평화와 강한 노동조합의 정치적 영향력으로 무기 도입 사업이 국방력 강화보다 고비용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알려짐. 이런 상황에서 유럽 방산업체는 높은 가격과 느린 납기 일정을 각국 정부에 제시하고 있다고 언급됨. (주간동아) (https://t.ly/_Znp4)

Panama Canal Becomes The Biggest Traffic Jam Of The Seas With Over 200 Ship Backlogs

파나마운하가 오랜 기간 가뭄에 시달리면서 대기선박 수가 200척에 달한다고 보도됨. 파나마 운하청은 통항량을 줄이고, 운하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상태임. 평시 36척 수준에서 현재 32척으로 통항량을 줄인 바 있음. (Marine Insight) (<https://t.ly/aaJJF>)

한국 조선, 중국 제치고 수주 1위 탈환

한국 조선업계가 7월 중국을 제치고 전세계 수주량 1위를 탈환했다고 보도됨. 7월 전세계 선박 발주량은 333만CGT로 전년대비 22% 증가했다고 알려짐. 그 중 한국은 146만CGT(44%), 중국은 113만CGT(34%)를 기록했다고 알려짐. 7월말 누계 발주량은 2,312만CGT로 전년대비 25% 감소했는데, 한국 비중은 30%, 중국은 56%로 알려짐. (문화일보) (<https://t.ly/zIzGF>)

시도상선, 중국에 벌크선 발주

홍콩 시도상선이 15년만에 벌크선을 발주했다고 보도됨. Jiangsu NewHutong Ship Heavy Industry에 82,000DWT급 캄사르막스 벌크선 8척과 64,000DWT급 울트라막스 벌크선 4척 등 총 12척을 4.12억달러에 발주했다고 알려짐. New Dayang Shipbuilding에도 캄사르막스 벌크선 4척을 발주했다고 언급됨. 선가는 캄사르막스 3,500만달러, 울트라막스 3,300만달러로 알려짐. 기존 보유선박 64척은 모두 한국과 일본 조선소에서 건조되었다고 언급됨. (선박뉴스) (https://t.ly/6m_G4)

ONGC fires starting gun on prized offshore development - international competition expected

인도 ONGC가 Cluster 9 유전 및 가스전 개발 사업 입찰을 시작했다고 보도됨. 입찰 접수는 10월 5일까지이고, 연중 결과를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짐. 인도는 원유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향후 몇 년간 다수의 프로젝트를 시작할 계획을 알려짐. 2025년까지 18개 대규모 해상 EPC 프로젝트를 입찰에 불릴 계획으로 언급됨. 13개 프로젝트는 33억달러 규모로, 최소 5개 서부해안 프로젝트에 추가 40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으로 언급됨. (Upstream) (<https://tinyurl.com/scscbyb>)

"9년 만에 하기휴가 전 타결"…한화오션, 임금교섭 조인식

한화오션 노사가 출범 후 첫 임금 협상을 9년만에 하기휴가 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보도됨. 한화오션 노사는 지난 5월 노사 상생 협약식을 갖고 직원 고용 안정 등 관련 협력을 약속 한 바 있다고 알려짐. (이코노미스트) (<https://t.ly/C8CUT>)